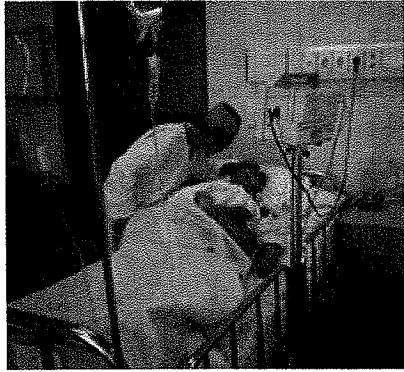


◀기쁜 우리 날들▶ 가슴을 울리는 노부부의 사랑

새벽편지



할아버지는 남자병실, 할머니는 여자병실로 이
웃한 병실에 입원해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상태가 안 좋
아지셔서 일반병실에서 ICU(중환자실)로 옮겨
지셨고 의식이 떨어져가는 할머니의 손을 어루
만지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할아버지.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다행히 깨어나셨다.
말씀도 잘 하시던 시간, 할아버지는 할머니 신
체 상태를 확인하고 밥 먹으러 식당으로 가던
나를 붙잡고, 보청기를 낀 채로 내 설명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고 애를 쓰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지셨어요. 걱정 안하셔도 돼요" 란 말에 내 손을 꼭
부어잡으시면서

"감사합니다..." 를 되뇌셨다.

그 후로 수일간 할머니는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closed observation 상태 관찰 중.
할아버지는 오늘도 매점에서 과자며 음료수며 아이스크림 등을 사서 두 봉지에
나눠 담고는 간병인들에게 한 봉지, 간호사들에게 한 봉지를 미안하다는 듯이
슬그머니 내려놓으신 후 떨리는 발걸음을 할머니 앞으로 옮기셨다.

그러던 오늘, 할아버지는 조용히 주무시고 계신 할머니께서 눈뜨시지 않자 숨
을 거둔 줄 알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다급하게 할머니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통곡하셨다.

옆에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 피곤하셔서 주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는 너무 격해진 울음을 쉬~ 거두지 못하셨다.

수십 년을 함께 살고서도 아직은 더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

그토록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당신은 있습니까?



◀그리운 날의 흑백TV▶ 수사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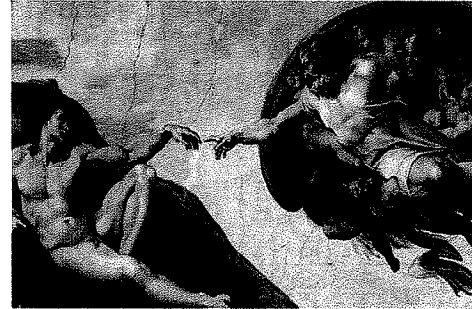
날카로운 관악기 음과 '봉고'인듯한 타악기
를 두드리는 시그널 음악이 나오면 왠지 긴
장해지면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최불암씨
가 반장으로 나오고 김상순,조경환,남성훈
그리고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은 모두 5명의
형사가 등장하여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라 범인의 눈으로도
세상을 보던 감동과 인간미가 있어 보고난
후의 여운이 참 길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마태 7:8)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8권 1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4월 30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미켈란젤로



미술가들은 누구나 자기 작품에 서명
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위대
한 거장 미켈란젤로는 자기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니다.

여기에는 사유가 있습니다.

시스틴 성당으로부터 천정벽화를 그
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그는 몇 달 동
안 아주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리하여 완성한 그림이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였습니다.

물론 그는 벽화위에 서명을 남겼고 아주 흡족해하면서
성당을 나섰습니다.

성당을 나선 미켈란젤로는 눈부신 햇살과
푸르디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화가도 그려낼 수 없을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미켈란젤로는 압도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미켈란젤로는 갑자기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도 서명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는데

기껏 작은 벽화 하나 그려놓고 이름을 써서

자랑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던 것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즉시 돌아가서 자기의 서명을 지워버렸고

이후 어떤 작품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비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아니다

◀인품따라 행하기▶

삶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여성의
최고급 화장품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9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d	15(시 51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214장	다 같이
기도 Pray		정희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21:15-1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주는 저 산밀에 백합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부활 후 만남(2)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60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5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안내
30	정희자	한상순	<본당> 김순자 정희자
7	현석호	강동호	
14	김교섭	강보원	<현관> 이재영 박일영
21	김소연	강욱	
28	김순자	강은미	

◆5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7 어린이주일	월초새벽기도회(1) 남성만이 르네상스(5) 구역예배(12)
14 어버이주일	믿음의어머니기도회(16) 피택자교육(19)
28 이삭줍기주일	수요수도원(기도회)(31)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 수요일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 금 5:55 | 청년부: 토 오후 5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부신 초록으로 두 눈 머는데. 진한 향기로 숨 막히는데...”
-5월. 오세영- 5월은 늘 이렇게 눈 부시게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5월의 우리 삶에 그만한 열심의 덧가와 그보다 더한 기적의 축복이 함께 내리도록 기도 할 겁니다.

1. 교우소식

*<기도해주세요> Arthur Cheng(장은정 성도 남편) 심장수술 후 회복중.
Auckland Hospital

*김경숙 집사(이재영 집사). 부친 장례 마치고 귀국.

2. 다음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녀들을 보면 잘 길러야겠다는 마음, 저들처럼 맑게 살고 싶다는 마음...

3. 『첫날새벽기도회』 <일시> 5월 1일 새벽 5:55분

*어린이, 어머니.. 생각만해도 5월은 왠지 행복해지는 달입니다. 기도응답이 많아 진정으로 행복한 5월이 되도록 첫 날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4. 『남성만의 르네상스』 정기 남선교회 모임 <일시> 5월 5일 저녁

*2개월에 한번씩 남선교회원끼리 모여 회의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는 재밌는 얘기로 늦은 가을밤을 즐기십시오.
남성들? 모이면 여성이상으로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5. 제5남선교회 모임. <일시> 오늘(30일) 저녁 7시 <장소> 정성호 집사 자택

☎410-1683. 54 Aberdeen Rd. Castor Bat

6. 행복한 수요일밤의 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찬양과 말씀에 우리의 3일동안 신앙을 돌아보고 또 다른 3일을 다짐합니다

◀작한 시인▶ 낙엽

구르몽



시몬, 나무 잎새 저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 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

.....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 되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들은 모두 아름답노라고 봄의 생명들이 말해주고 사라져 가는 것들도 그 이상 아름답다고 낙엽이 깨닫게 해줍니다.

여름내 햇빛으로 제 몸 태우고는 조금씩 변색함은 퇴색이 아니라 물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 낙엽에 철학자도 되었다가 문학소년소녀도 되었다가 시인도 되게 하던 '구르몽',

낙엽밟는 소리가 좋으냐는 대답도 하기전 낙엽 밟는 호사스러움이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게하는 낙엽 있는 길입니다.